



국내 최초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국제종합행사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도·시군 문화관광부서장 및 도내 관광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 KBO “확진자 나와도 중단 없다”

### 코로나19 통합 대응 매뉴얼 확정

올해 KBO리그는 코로나19 선수 확진자가 나와도 리그를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2021 KBO 코로나19 통합 대응 매뉴얼을 확정했다. 2021시즌 개막을 앞두고 KBO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그레이드 된 통합 매뉴얼을 선보였다. 경기 중 그라운드를 제외한 구장 내 모든 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사례를 적발, 제재할 예정이다. 그라운드 내 행사 및 기념 사진 촬영 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선수단 거리두기 지침은 강화됐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지침을 준수하고 타구단 인원 및 외

부인과의 만남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중·고위험군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선수는 1차 적발시에는 벌금 100만원으로 끝나지만, 2차 적발시에는 상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군 선수단 확진자 발생시 리그를 지속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규시즌에는 1군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리그 중단을 결정할 수 있었다. 올 시즌에는 자기적리 대상자를 제외한 대체 선수로 중단 없이 운영된다. 다만 엔트리 등록 미달 등 리그 정상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실행위원회 및 이사회 요청을 통해 리그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물론 경기 중 확진 판정이 통보되면 해당 경기는 즉시 중단된다. /뉴시스

# 아·태 마스터스 ‘전북 관광 마중물’

국내 최초 생활체육·관광 결합형 국제행사로 기획  
도·시군 문화관광부서장 등 한자리 모여 간담회  
특색있는 콘텐츠 발굴 참가자 모집 활성화 모색

국내 최초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국제종합행사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도·시군 문화관광부서장 및 도내 관광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전북 관광의 마중물이 되길 다짐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라북도관광협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전북도 및 14개 시군 문화관광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엘리트대회와는 달리 경기성적보다는 스포츠에 대한 열정, 경기참여의 즐거움, 관광, 여행 및 문화 체험에 대한 욕구 등이 대회 참가 목적이다. 특히 이는 스포츠대회지만 스포츠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 조직위는 대회 맞춤형 특별 관광프로그램과 여행상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미 전북도에서 활발히 운영 중인 투어패스와 순환관광,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 이외에도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발굴로 참가자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위 관계자는 “각 경기장소별(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관광프로그램을 접목, 참가자에게 대회 참여와 함께 충분한 여가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대회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시·군별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발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직위는 2021년 상반기까지 시군별 대표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 DB자료를 구축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시군별·테마별 대회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및 여행상품개발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강오 조직위 사무총장은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한 국내 최초의 국제대회로, 이번 대회를 통해 전라북도가 스포츠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내 관광 유관기관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14개 시군을 끌고투 아우르는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 KLPGA 2021 엠씨스퀘어 군산CC 드림투어 조인식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서울시 대치동 KLPGA 사무국에서 'KLPGA 2021 엠씨스퀘어-군산CC 드림투어'의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 24일 밝혔다. 'KLPGA 2021 엠씨스퀘어-군산CC 드림투어'는 4개 차전으로 열리며, 대회 장소는 모두 군산 컨트리클럽이다. 조인식에 참석한 (주)지오엠씨의 임영현 회장은 “KLPGA 드림투어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영광이다. 엠씨스퀘어가 한국 골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쁘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선수, 협회, 골프 산업 관계자 모두가 합심하여 좋은 대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군산 컨트리클럽의 박성주 대표는 “군산 컨트리클럽은 2011년 점프투어로 KLPGA와 인연을 맺은 뒤, 2014년부터 8년째 KLPGA 드림투어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최대 81홀의 골프장 인만큼 아낌없는 지원으로 대회가 완벽하게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LPGA 2021 엠씨스퀘어-군산CC 드림투어' 첫 대회인 2차전은 오는 4월20일 막을 올린다. /뉴시스



전북체육회가 24일 전북대병원에서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휴백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선수 재활치료 지원, 경기력 향상 도움’

전북체육회-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휴백셀 스포츠-의학 연계 전문선수 육성 재활의료 활성화 협약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24일 전북대병원에서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고명환)·휴백셀(대표 허성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스포츠-의학 연계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한 스포츠 재활의료 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게 된다. 또 국내 및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학술정보교류 등을 비롯해 전문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호 발전을 모색한다. 협약식이 끝난 후 허성규 대표이사는 “선수들을 위해 써달라”며 도 체육회에 초음파치료기 20대를 전달했다.

물리치료기기에 해당되는 초음파치료기는 어깨와 무릎 등 관절 통증 완화에 검증된 제품으로 부피가 작아 훈련장 또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초음파치료기는 심리상담과 기술·전술분석 등을 진행하는 전라북도스포츠과학센터에서 적극 활용하게 된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선수들의 부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준 전북대병원과 휴백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